

꼭 필요한데...답 못 찾는 광주 기피시설 어떡하나

쓰레기 소각장 설치 후보지 3개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쳐 난항 반려동물 장묘시설도 반발 우려에 장기사업으로 미뤄져 골머리

도시 인프라인 쓰레기 소각장을 비롯해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 문제로 광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해당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있고,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같은 이유로 장기과제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매월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매월동 대책위)는 17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매월동에 소각장 설치 안된다”고 반발했다.

소각장 시설이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된 탓에 주민들은 건강·환경권 침해를 주장하며 ‘결사반대’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선정위는 현재 소각장 매립지 2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비 3300억과 편의시설 650억 등 4000억여원을 투입해 2029년 12월 준공해 2030년 운영을 목표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토지주의 신청을 받은 결과 공모 대상 지역은 광주시 서구 매곡동과 북구 장등동, 광산구 삼도동 3곳이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률에 따라 지난해 6월 구성된 입지선정위는 이달까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와 전문연구기관 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최종 선정 등의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최종 선정지를 의결한다.

이달 말 입지 선정을 앞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매월동 대책위는 “25년 전 생긴 민간소각장에 더

해 매일 650t의 쓰레기를 태우는 시립소각장이 추가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이 된다”며 “매월동뿐 아니라 서창동, 금호동 등 인근 마을까지 소각장 발암물질 연기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10년째 매월동에 살고 있다는 양춘식(70)씨는 “소각장에서 뿜어내는 연기가 인근 영산강 자전거 도로를 걷는 시민들에게, 유일하게 그린벨트로 묶여진 서창동 주민들에게도 퍼질 것”이라며 “소각장이 생겨야 한다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등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장등동 대책위)도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장등동 대책위는 “장등동은 이미 변전소와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각화동과 문흥동 등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동네까지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돼 적합한 설치장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코 인근 사거리의 교통혼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350대 가량의 쓰레기 차가 오고간다면 체증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삼도 본랑 쓰레기 소각장 유치선정 반대 비상대책 위원회(삼도동 대책위)는 지난해 광주시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도동 대책위는 반대의견에서 “최적점 빛그린 국가산단과 친환경 미래 자동차 국가산단단지 조성·활성화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또 수거차량의 주 통행 구간인 어등산 관망단지 일대가 합평, 영광, 광동산단과 빛그린 산단 진입구간에서 극심한 교통 체증 지역으로 돌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오전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매월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가 반대 시위를 열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했던 반려동물 장묘시설도 주민 반대가 우려돼 장기사업으로 미뤄졌다.

동물 장묘 업무를 공공에서 수행하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있지만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광주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애견-애묘인들은 반려동물이 죽으면 타 지역 시설을 찾아가거나 사체를 쓰레기 수거 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배출하는 실정이다.

기피시설을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지원책

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실효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가 소각장이 설치되는 지역에 지역 자치구에 200억, 지역주민 숙원사업비 300억, 특별지원금 500억 등 총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피시설이 입지한 지역과 주민을 배려한 지속적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기피시설을 집

뒷마당에 설치하지 않으려는 현상은 전세계 어디에나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해당 지역에 가스·전기 요금 무상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복지·세제혜택과 같은 유인책 뿐 아니라 해당 지역 기관장 또는 행정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기피시설이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영광 낙월도 해상 새우잡이 배의 비극 일 못한다며 뺨 맞은 선원, 흥기 휘둘러 갑판장 살해

새우잡이 배에서 ‘일을 못한다’고 혼나자 흥기를 휘둘러 동료를 살해한 40대 선원이 긴급체포됐다.

목포해양경찰은 40대 선원 A씨를 살인혐의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5일 새벽 12시 20분께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향 5km 해상에서 새우잡이 작업을 하던 연안자망 어선(9.77 t 급·영광선적)에서 갑판장 B씨를 흥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일을 못한다”며 뺨을 3차례 때리

자 화가 나 배에 있던 작업용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흥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선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범행 1시간여 만에 어선 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다른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테이저전 맞고 숨진 50대 사인은 ‘급성 심장사’

국과수 부검 결과 확인

아들에게 흥기를 휘두르다 경찰의 테이저전에 맞고 호송된 뒤 숨진 50대 남성의 사인이 ‘급성 심장사’로 확인됐다.

1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테이저전을 맞고 검거된 50대 남성 A씨의 사인이 종결처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A씨 사망원인

이 ‘외부자극에 따른 급성 심장사’라는 소견서가 나왔다.

이에 경찰은 A씨 사망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하고 A씨에 테이저전을 쓴 경찰관에 대해선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급성 심장사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 흥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테이저전이 사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피해자의 생명이 걸린 급박한 상황에서 테이저전 사용이 위법한 조치는 아니었던 점도 같이 고려됐다.

또 A씨에게 사용한 테이저전의 전압, 전류 등을 확인한 결과 정상 범위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23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자식이 살던 집에 몰래 숨어 있다가 침입한 뒤 30대 아들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테이저전을 맞고 쓰러졌고 광주북부경찰서로 이송된 뒤 조사를 받던 중 쓰러져 숨졌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최태원 측 오류 지적에 재판부 판결문 수정 1조 3800억원 재산분할 금액은 변동 없어

최 회장 측 대법원 상고 방침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0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했지만, 판결 결과는 변경되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집유근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 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지만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오류로 노 관장에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 결과가 잘못됐다고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도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09001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